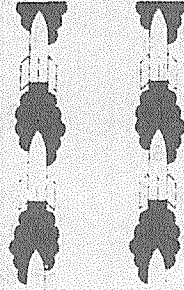


電子工業日誌



〈'94.6. 1~6. 30〉

- 6. 1 : 전자부품(研), 행정망용 주전선기 등 다중처리 시스템의 캐시 이용 효율을 높여 성능을 향상시켜 주는 「캐시 스누퍼(Cache Snooper)용 주문형 반도체(ASIC)를 개발 상품화에 성공했다고.
- 6. 1 : 상공자원부, COCOM 해체에 따라 컴퓨터 TDX 등 일반산업용 전략물자의 구공산권에 대한 수출 통제를 완화키로 했다고.
- 6. 3 : 상공자원부, 정보관련 기기 등 특정부문에 편중돼 있는 국내 정보산업 구조를 고기술, 고부가가치 위주로 전면 재편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산업고도화 계획을 마련 추진키로.
- 6. 4 : 과기처, 중소기업에 대한 제3차 기술무상 양허사업 과제로 136개를 선정 6월말부터 140개 중소기업에 이전키로 했다고.
- 6. 4 : ETRI, 위성통신을 위한 지상시스템의 핵심부품인 FEC(Forward Error Correction) 칩 2종과 RBT(Recovered bit timer) 칩 1종 등 총3종의 ASIC을 캐나다 통신 장비 전문업체인 MPR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.
- 6. 4 : 생기원, 국내 최초로 미국 FCC로부터 시험시설을 인증받아 유선통신단말기에 요구되는 전자파장해(EMI) 규격인 FCC Part 68의 공인시험 기관으로 등록했다고.
- 6. 7 : ETRI, PCS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시스템, 지능형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등 10개 과제를 올해 신규 연구과제로 선정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.
- 6. 8 : 과기처,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관련 연구개발 분야의 정

책방향을 제시하고 공통 핵심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수행할 연구개발 전담반을 구성키로.

- 6. 9 : 공진청, 주요 수출대상국의 비관세 기술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 확대 정책에 따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험연구소 인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다고.
- 6. 10 : 상공자원부, 방송용 카메라와 VCR를 비롯한 방송용기기를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기기의 국산화를 제고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.
- 6. 13 : 상공자원부, UR 타결로 GATT 체제가 WTO 체제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국내기업의 세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아가기로 했다고.
- 6. 15 : 상공자원부, 미국이 UR 협상 타결에 따라 UR 이행 법안에 WTO 협정과 일치되지 않는 일부 반덤핑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로.
- 6. 16 : ETRI, 노트북 PC 및 캠코더 등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의 소형화에 필수적인 초소형 고성능 고체리튬 2차 전지가 '97년까지 국내

기술로 개발키로 했다고.

- 6. 20 : 기계연구원, 진공스퍼터링(Sputtering) 방식의 저항기 박막기술로 25PPM 이하의 저항기 TCR 저항기 온도계수 값 실현에 성공했다고.
- 6. 21 : 상공자원부, 기술라운드(TR) 규제에 대응 가전·정보통신·컴퓨터의 융합화를 통해 기술력을 제고키위해 국내 전자 정보관련분야의 기술개발 추진전력을 확정 발표.
- 6. 21 : 상공자원부,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키위해 멀티미디어 등 7대 전략기술분야에 3~5년간 민관합동으로 총 2조여원을 투입 22개 기술과제를 개발키로 했다고.
- 6. 22 : 산업연구원, 「하반기 국내 전자산업 전망」에 따르면 전자수출은 엔고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보다 21.8% 늘어난 139억 7,100만달러에 달하고 수입은 47.6% 증가한 95억 5,300만달러, 내수는 10.8% 늘어난 156억 1,1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.
- 6. 25 : KIST, 세계적으로 개발경쟁이 치열한 청색 발광다이오드(LED) 시제품을 텔라(주)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.
- 6. 28 : 공진청, 공장혁신 실천지도를 통해 생산성이 30% 이상 향상됐을 경우 지도선도업체로 지정하고 FID(공장지도선도) 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체 수의 계약시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.
- 6. 30 : 정부, 해외조립용으로 수출되는 부분품의 관세 환급기간을 8월부터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.